

그린 포트폴리오 확대

최근 에너지·화학 기업은 탄소배출 비용 증가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받고 있습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전환에 대한 시장 내 기대를 반영하여 Green Energy & Materials 기업 정체성 확립의

목표를 설정한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배터리·소재 등 친환경 분야 사업 확대 뿐만 아니라 에너지·화학사업을 그린 사업으로 전환하는

'Carbon to Green'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린 포트폴리오 확대'를 GROWTH 핵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그린 자산 중심의 자산구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변화의 수준을 정량적 지표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과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인정받아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화학사업 사업 및 그린 사업 정의

· 에너지·화학사업(자산): 탄소 중심의 에너지 및 화학 관련 사업(자산)

· 그린 사업(자산): 글로벌 탄소 감축 및 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산)



국내 최대 규모의 2차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인 'InterBattery 2022'에 'Power On'을 주제로 참가한 SK은

핵심과제 달성 전략(중장기 전략)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탄소 감축과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는 그린 포트폴리오 중심의 혁신을 달성하고 Green Energy & Materials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Carbon to Green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Carbon to Green 전략은 'Green Anchoring', 'Green Transformation' 및 'New & New'로 구분되는 실행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Anchor'로 삼아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thium-ion Battery Separator, LiBS), 배터리 소재, BMR 등 그린 사업의 확장을 추진하고, 기존 사업 분야에서는 탄소 감축 제품 생산 확대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 공급 등의 신규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관련 투자를 추진하고자 하며, 에너지·화학사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투자 또한 지속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본 핵심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그린 자산 비중을 에너지·화학 자산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Alignment with UN SD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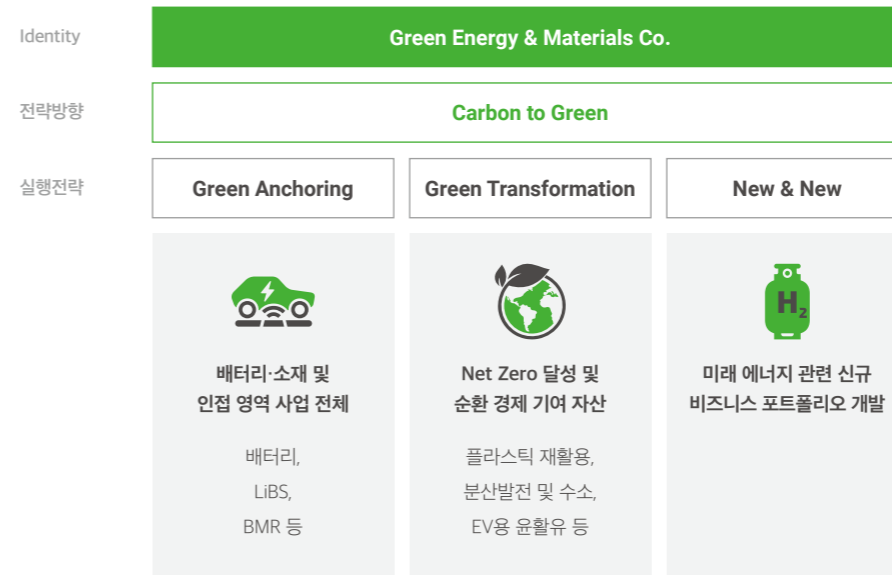
2025년 목표



포트폴리오 혁신을 통한 에너지·화학 대비 그린자산 비중

2배 확대

파이낸셜 스토리 추진 체계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2022년 활동 계획

2022년 SK이노베이션은 본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Carbon to Green 전략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터리·소재 사업은 북미, 유럽, 중국 중심의 글로벌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며, 특히 BMR 사업의 경우 연내 독자 개발한 리튬 회수기술 검증 및 투자 의사 결정을 통해 상업생산 공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에너지·화학사업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기술 확보 및 상업화 추진과 더불어 주유소 네트워크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과 모빌리티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 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에너지 관련 신규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2022년 그린자산의 규모가 에너지·화학 자산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실행 전략

 <p>Green Anchoring</p> <p>배터리 및 LiBS 국내외 적기 투자, BMR 성과 창출</p>	 <p>Green Transformation</p> <p>플라스틱 재활용 및 연료전지 사업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 전환 가속화</p>	 <p>New & New</p> <p>탈탄소 및 저탄소 에너지 관련 기술 확보 및 파트너링을 위한 사업화 추진</p>
---	---	--

2021년 성과

SK이노베이션은 2021년 미래 변화 방향성에 대한 예측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파이낸셜 스토리 실천을 위한 Carbon to Green 전략을 발표했으며, Green Anchoring 및 Green Transformation 영역에서 다양한 전략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Green Anchoring

배터리 현지 수주 확대를 위하여 미국, 유럽, 중국 등 국가에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였으며, 향후 글로벌 완성차 기업 포드(Ford)와의 협력을 통한 전기차 배터리 물량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함께 글로벌 3대 전기차 시장으로 꼽히는 유럽과 중국의 배터리 분리막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LiBS와 CCS(Ceramic Coated Separator) 현지 설비 증설을 추진하였으며, 배터리·소재 사업을 ‘Anchor’로 삼아 인접 영역으로 확장을 추진하고자 BMR 시험 생산공장(Demo Plant)을 완공하는 등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reen Transformation

2021년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화학사업에 내재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탄소 배출 등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주유소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규제 개선 추진 및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등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운영 중에 있는 에너지·화학사업 설비의 SHE 수준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병행하며 기존 사업의 친환경 전환 추진과 더불어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코멘트

기업에 대한 투자기관의 탄소 배출 감축 요구와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의 탈탄소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소재 사업의 확장은 물론 에너지·화학사업의 친환경 전환을 통한 포트폴리오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 혁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SK이노베이션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량지표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화학 자산 대비 그린 자산 비율(Carbon to Green Ratio) 지표를 통해 포트폴리오 탈탄소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Green Energy & Materials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임원: 김정민 경영전략담당 (kim.jm@sk.com)
담당 PL: 임종섭 경영관리PL (jslim27@sk.com)